

» 1면에서 계속

층마다 다른 색깔이 가진 의미

메타버스 도서관은 착공 당시부터 '신개념 설계와 한국체대 캠퍼스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컨셉으로 한다고 알렸다. 완공된 지금은 이와 더불어 '구름 위의 책장'을 형상화했다.

메타버스 도서관이 위치한 5, 7, 8층은 각각 파랑, 노랑, 주황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주로 이 색깔들의 조합을 '3색형광펜'에서 찾을 수 있다. 송 주무관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다른 세계의 만남을 말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건물에 들어서면 기존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들어오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과감한 색깔에 도전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주로 공부를 하는 5층은 차분한 느낌의 파랑,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는 광장인 7층은 밝고 생기발랄한 노랑, 도서관을 담고 있는 8층은 친근한 느낌을 주는 주황으로 정했다."라며 색깔들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전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끌어야 할 도서관 '24시간 개방'

이전부터 한국체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바랐던 사항 중 하나는 '도서관 24시간 개방'이었다. 학보사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 총 3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190명의 응답자 중 124명(65.3%)이 '24시간 개방'을 원한다고 답했다. 도서관 이용 시간 연장에 관해 학술정보원 김기동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신축 도서관에서는 24시간 개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을 때, 김 팀장은 "지금 당장 24시간 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5, 7, 8층을 저 혼자 관리 중인데,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는



(좌)학생들이 8층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우)새로 정렬된 도서관 책장 앞에서 책을 고르는 한국체대 학우.

(7, 8층만 해당) 현재도 관리가 힘들다. 그 뿐만 아니라 신축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도서관보다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많고, 안전 시설도 마땅치 않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지난 학기의 시험 기간 연장 개방 때, 12시부터 6시까지의 사용자를 확인한 결과 평균 10명 안팎이라는 저조한 수에 미쳤다. 재학생이 3,000명 가량 되는 학교에서 10명이라는 인원은 정말 적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학교의 재정, 시설관리, 안전 등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도서관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4시간 개방을 이끌어낼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김 팀장은 "다가올 중간고사 기간의 약 2주 전부터 5층 집중 열람실에 한해 24시간 개방을 추진할 생각이다. 해당 기간에 실제 이용자가 많아야 학교에서도 학생의 필요를 인식하고 요구를 들어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시험 기간 연장 개방이 급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 한국체대 학생들이 정말로 24시간 개방을 원한다면 학생들 스스로

의 힘으로 이 기회에 많은 이용과 관심, 홍보를 부탁한다."라고 당부를 전했다.

"시설이 좋아 공부할 맛이 나요"

그렇다면 메타브러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한국체육대학보사는 지난 17일 메타브러리가 개관한 후로 5일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메타브러리에 대한 한국체대 학생들의 인식 및 궁금증, 요구사항'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총 190명의 참여자가 있었다. 신축 도서관 이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184명(96.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개인의 의견을 적는 주관식 문항에도 65명의 응답자가 있었다. 이렇듯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높은 관심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만족도에 대해 묻자, "다른 건물과 달리 시설도 너무 좋고, 우리 학교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환경이라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든다. 공부할 맛이 난다.", "한국체대에서 유일하게 대학교 건물 같은 건물이다.",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소



파와 의자들이 많고, 공간 때 있을 곳이 없는 학우들에게 편의 공간을 제공해 줘서 매우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을 편리하게 할 핵심 시스템

메타브러리는 '학술정보원' 어플을 이용해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이야기할 서비스들은 시범 운영 중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학술정보원 어플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서비스는 '좌석예약' 서비스이다. 메타브러리 5층과 8층에는 조용한 공간에서 공부나 독서 등을 즐길 수 있는 개인 좌석이 배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좌석예약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5층의 '프로젝트룸 예약'도 할 수 있다. 프로젝트룸은 그룹 스터디나 과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시범 운영 중에는 이메일을 통한 예약이나 8층 데스크에 직접 방문 후 예약만 가능하다. 이 서비스 또한 좌석 예약제처럼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면 어플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예약

을 할 수 있다. 현재 메타브러리는 시범 운영 중이다. 그 이유는 학술정보원 어플 속 다양한 시스템들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로 이용 가능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겠다.

하루에 한 번 찾아오고 싶은 도서관이 되려면

메타브러리 완공 후 박 원장은 "준비한대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학생들에게 학습과 휴식을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다. 함께 준비한 주무관들, 팀장 등 학술정보원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메타브러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또, 예산 확보를 위한 기부금 캠페인에 대해 "메타브러리 예산을 얻을 때 한국체대 최초로 기부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졸업생, 재학생 등 한국체대인들이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 기부를 진행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며 한국체대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를 희망했다.

송시영 주무관은 "한국체대 학생들 모두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찾아오는 도서관이 되길 바란다."라고 염원을 드러냈다. 또한, 메타브러리를 이용할 한국체대 학생들에게 "공간이 더욱 의미있게 쓰일 수 있게 서로간의 매너를 지켜주길 바란다. 우리가 큰 제약 없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공부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이어나가고 싶다면 서로를 위한 배려와 존중, 시설을 아끼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적극적으로 말해주면 좋겠다. 이용자가 얘기해주어야 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 8층 안내데스크에 적힌 'Hello' 처럼 우리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말고 다가와서 필요한 것을 요구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

# 한국체대에 새로운 편의점이 생겼어요!

## 메타버스 미래도서관 지하1층

신입생들의 풋풋함이 가시기도 전에 한국체육대학교에 또 다른 '새로움'이 채워지고 있다. 바로 지난달 17일에 개관한 '메타버스 미래도서관'에 새로운 편의점이 생겼다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한 학우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협동조합 허승민 매니저를 만났다.



메타버스 도서관 지하1층에 자리한 쿵스켓 편의점 외부 전경이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생활협동조합 매니저 허승민입니다. 현재 생활협동조합 내 인적 자원 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Q. 지난 3일부로 신축도서관 건물 지하 1층에서 새로운 편의점이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소개의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이번에 오픈한 편의점의 상호를 이마트24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명칭은 '쿵스켓(Coopsket)'입니다. 쿵스켓은 생활협동조합과 이마트24가 함께 만든 생활협동조합만의 오리지널 편의점 브랜드입니다. 둘은 각자 별개의 상호이므로 학생분들께서 혼용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Q. 운영시간 등 전반적인 편의점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쿵스켓은 24시간 내내 영업합니다. 다만, 9시부터 18시까지는 근무자를 두고, 그 외 시간에는 무인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CU와 마찬가지로 3개의 무인 계산대를 배치했으니 무인 영업시간은 물론,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에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Q. 현재 CU에 대해서 삼각김밥 등 간편식 및 단백질류 식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쿵스켓에서는 이러한 점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A. 그간 CU 운영과 관련한 학생분들의 의견을 저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쿵스켓 뿐만 아니라 CU까지 모두 학생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매출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할 계획이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Q. CU는 생활협동조합원 할인 혜택이 10%지만 쿵스켓은 3%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편의점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A. CU와 달리 쿵스켓은 학교 측에서 임의로 혜택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3%의 할인 혜택이 쿵스켓 브랜드 자체의 고정 운영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만, CU는 근무자를 통해서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나 쿵스켓은 무인 계산대를 통해서도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용하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학생들이 CU에 비해 쿵스켓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게 생활협동조합에 더 이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CU와 쿵스켓의 계약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CU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반면, 쿵스켓에는 매달 고정 회비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CU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CU 본사 측에 내는 수수료가 많아지므로 회비가 고정된 쿵스켓에서 매출이 많이 나는 게 이익을 내는데 더 유리합니다.

Q. 학생들이 앞으로 쿵스켓을 더 많이 이용하게 돼서 생활협동조합의 이익이 증가하면, 그 이익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A. 생활협동조합의 이익이 증가하는 게 결국 학생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선순환 구조'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큰수저 식당은 완전한 적자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학식 가격 인상 없이 꾸준히 질 높은 끼니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편의점과 카페

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식당 적자를 메꾸기 때문입니다. 이번만 아니라 편의점 근무자 같은 경우도 전원 다 재학생으로 구성하여 11,550원이라는 타 편의점 대비 높은 시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은 학생 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니, 생활협동조합의 이익이 증가할수록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많아진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신축도서관 건물 내에 편의점 외에도 새로운 식당과 카페가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관련 운영계획에 대해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식당과 카페 둘 다 정확한 입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 최대한 이번 학기 내로 영업 시작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컨셉'에 있어서도 기존 체육과학관 내 시설과 차별화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식당의 경우, 기존 학식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컵밥 등 가벼운 끼니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카페는 기존 카페가 테이크 아웃(Take-Out) 전문이었던 것과는 달리 좌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급 디저트 등을 메뉴에 넣어 '프리미엄화'시킬 계획입니다. 큰수저 식당과 큰수 카페처럼 이번에도 학생분들이 직접 지어준 이름으로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로 생긴 편의점 및 앞으로 생길 다른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생활협동조합이 학생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쿵스켓은 현재도 신축도서관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 중이니, 혹시 몰랐던 이들은 이 글을 읽고 꼭 한 번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송현일 수습기자 click21@naver.com

## 영상 촬영은 바로 여기서, 'KNSU 스튜디오 설치'

메타버스 미래 도서관 4층에 KNSU 스튜디오가 설치됐다. 멀티 스튜디오 1실, 셀프 스튜디오 2실로 구성 되어 있다. 우리 대학 구성원이려면 누구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은 운영 부서인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이용 가능 여부를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이번 스튜디오는 그간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던 수업 영상 촬영 및 녹화 기능을 갖췄다. 스튜디오마다 다른 기본 배경을 선택할 수 있으며, '크로마키' 배경도 활용 가능하다. 태블릿 모니터, 전자철판을 통해 ZOOM 실시간 영상 송출은 물론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의 녹화 기능과 ZOOM 프로그램의 화면 기록도 활용할 수 있다.

영상 콘텐츠 편집, 등록, 배포 등의 매뉴얼은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면 된다.

기민정 기자  
bizarre\_jade\_stay@naver.com



메타버스도서관 4층 멀티스튜디오내부 전경